

Historical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by Bong Jin Kang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Samkook), two of the states, Kokwulye and Pakje are significant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Much is not known about the architecture of this time, but a few examples are known, and they give a hint to the development of an architecture which is uniquely Korean.

Kokwulye was founded around 37 BC in the area of Manchuria by the first King Dongmyung. In 586 King Pyungwan transferred the capital to Pyungyang. During the reign of King Bojang, Kokwulye was defeated by Silla in 668.

The ancient tomb of Kokwulye is famous for its large scale and unique Korean architectural system. Also the mural located in the tomb is artistically very beautiful and truly Korean in character.

Pakje, another Korean state was founded on the territory of the Mahan in the south-west part of Korea. In 18 BC the first King, Onjo located the capital in Kwangju. In 475 during the reign of King Karo, the capital was transferred to Puye because of the invasion of the neighbouring state of Kokwulye. In 660 Pakje was also defeated by Silla.

The famous Pagoda which is very famous in Korea architectural history had special significance in the Pakje era. Again the style of this era was uniquely Korean and the construction material was entirely wood. No stone was used during this period for the construction of Pagoda. It is also significant that these were the first Pagodas built in Korea

often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from China. Their beauty is still famous even today.

Another most famous period in Korean history is that of Silla and is also one of the Three Kingdoms. It was founded in 57 BC on the territory of Jinhan in the south-east part of Korea. The first King Pakhyukkese established the capital in Kyengju and the Silla dynasty ruled the southern half of Korea for nearly 1,000 years.

At the present time the site of this ancient capital, Kyengju, constitutes one of modern Korea's most complete examples of the arts of her long history. Because of this the city of Kyengju is fast becoming the major tourist attraction not only for Korean people, but also foreign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Among the numerous remains, the Pulkuk temple, Sukkuram and Chomsongdae ar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ulkuk temple was one of the largest Buddhist centers in Asia. Its graceful stone arches and many beautiful Pagodas are subjects of unnumerable photographs.

Chomsongdae, an ancient astronomical observatory, the first to be built in the orient, still stand in excellent condition, testifying to the scientific achievements of that early age.

High on a slope of a nearby mountain is the world famous Sukkuram. Deep within its beautifully carved recesses stands the great white Buddha, highly praised as the finest example of Buddhist sculpture and its image is the greatest masterpiece of the Silla dynasty arts.

한국건축의 사적 고찰(2)

강 봉 진

7. 고구려의 건축

고구려는 B.C. 37년에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朱蒙)이 국내성(國內城=滿洲通溝地方)에 국도를 정하여 건국하고 그 후 산상왕(山上王) 때 환도성(丸都城=滿洲輯安縣西南部)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고국원왕(故國原王) 때 중국 연(燕)나라의 공격을 받아 다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었다.

광개토왕(廣開土王) 때 국위가 진흥하여 A.D. 313년(晉의 建興元年)에는 한(漢)민족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세운 낙랑(樂浪), 대방(帶方)의 양군을 드디어 멸망시켰으며 장수왕(長壽王) 15년(A.D. 427) 때 도읍을 평양성(平壤東北, 石岩附近)으로 옮겼다가 평원왕 28년(平原王 A.D. 568)에 장안성(長安城=現平壤市)으로 도읍을 정하였다.

이 때가 고구려의 전성시대이었으나 얼마 후에 신라(新羅)가 강대해져서 드디어 보장왕 27년(寶藏王 A.D. 668)신라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의 3국 중에서 가장 진취적이며 의욕적인 나라였었다.

건국 당초에는 후한(後漢), 북위(北魏)로부터 문화를 수입하고 계속해서 동위(東魏), 북제(北齊), 수(隋) 등 역대 중국의 문화를 도입하여 제반 문물이 현저하게 진보 발달하였다.

특히 제17대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A.D. 372)에 진왕부건(晉王符堅)이 승 순도(順道)로 하여금 불상과 경문을 보네 은 후로 부터는 불교문화가 급격히 발달하여 국내성과 평양성 등지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불사가 건축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시에 다음과 같은 불사가 조영되었다고 한다.

초문사(肖門寺) 소수림왕 5년(A.D. 375), 국내성
 이불란사(伊弗蘭寺) " " "
 평양구사(平壤九寺) 광개토왕 2년(A.D. 392), 평양성
 금강사(金剛寺) 문자왕 7년(A.D. 498), 평양성

(1) 도 성

고구려 도성의 축성법은 한국 고유한 것으로서 백제, 신라, 고려, 이조 등 역대 왕조의 도성이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축성되었다.

즉 남쪽에 강물을 바라보고 동, 서, 북쪽에 산을 등진 지형을 택해서 도성을 축조하고 도성의 배후에는 산봉우리를 따라 산성을 축조하는 방식이다.

유리왕(琉璃王) 때의 국내성(國內城=滿洲奉天省輯安縣)이나 평원왕(平原王) 때의 장안성(長安城=現平壤市) 등은 모두 이와같은 법식에 의하여 축조하였다.

전쟁무기가 발달한 오늘날에 볼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었으나 고대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의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는 가장 이상적이며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2) 분 묘

고구려의 분묘는 그 규모가 대단히 클뿐 아니라 구조가 매우 합리적이며 견고한 석재로서 축조하였는바 외형은 석분과 토분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석분은 석재를 단상(壇狀)으로 여러 층을 쌓아올려 축조한 것이고 토분은 석조분묘의 외부에 흙을 돌아 둥글한 만두형으로 만든 것이다.

고분 내의 벽화는 필치와 문양, 구상과 색채 등의 우수함은 필설로 다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예술성의 풍부함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벽화를 통해서 당시의 목조와 석조건축의 양식과 장식문양 및 풍속 등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고구려의 고분은 고도인 만주 동구지방과 신도인 평안남도 대동강 연안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분묘 내부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천사오백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색채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문화예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군분(광개토대왕릉) (만주 봉천성 증안현)

고구려 전성시대의 왕인 광개토왕(제19대)의 능이다. 능의 구조는 석분으로서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구려 특유한 양식의 분묘이다. 평면은 정방형이며 화강석으로서 단형으로 7층을 쌓아 올렸다. 초층의 광은 약 100척(정면97,8척, 측면98,9척)이나 되며 층이 올라 갈수록 광과 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체감되어 안정감을 나타냈으며 제 5층 중앙부에 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맨 위에는 둥글게 만두형으로 콘크리트로써 덮었다. 총고는 37척 5촌으로서 견고하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내부에는 4방 약 18척(17.9×17.8)의 현실이 있고 왕과 왕비의 관을 놓았던 석상(石床)이 있다. 석재는 잘 다듬어서 상하의 석재가 서로 딱 물리도록 쌓았으며 초층 사면에는 각 3개씩의 큰 자연석을 기대서 견고하게 보강하였다.

각층마다 처음에는 기와를 덮었으나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있다. 현실 벽화는 전부 박락되어 현재는 없으며 부장품도 고구려가 망할 때 당나라 군사들이 도굴해 가버리고 현존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무용분(舞踊墳) (만주 봉천성 증안현)

현실의 오른쪽 벽에 남녀 14인이 춤을 추는 무용도가 그려 있고 왼쪽 벽에는 수렵(狩獵)도와 우차(牛車)를 그렸고 안쪽 벽에는 공양도(供養圖)가 그려 있다.

필법이 야취가 풍부한 원시적 유목민족의 감각이 풍기는 회화로서 당시의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상태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그림이다.

각저분(角抵墳) (만주 봉천성 증안현)

무용분의 옆에 있는 토분으로서 씨름하는 광경을 그린 벽화가 있다.

삼실분(三室墳) (만주 봉천성 증안현)

외관은 1개의 작은 토분에 불과하나, 내부는 3개의 실이 ㄷ자형으로 배열되었고 각 실은 통로로 연결하고 현실에는 기다란 선도가 있다.

현실은 평면이 4방 약 9척(8.9×8.9)이고 벽을 석재로 쌓았으며 벽 위로 부터는 5단의 방한으로 내쌓기하여 천정을 좁혀가다가 삼각형 방한으로 네 귀를 덮고 마지막 막으로 삼각형 판석을 상부에 덮어서 이루어지는 소위 투팔천정(원시적인 궁륭법=Vault천정)을 만들었다.

부실과 현실 천정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되어 있다.

석벽 면에는 회토를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벽화를 그렸다.

천정의 구근법에서 낙랑과 다른 점은 낙랑에서는 벽

돌(전돌)로서 Arch나 Vault법을 사용하여 천정을 축조하였음에 반하여 고구려에는 아직 이러한 시공법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전기한 바와 같이 석재를 내쌓기 해서 천정을 구축하는 방법만을 사용했던 것이다.

산연화분(散蓮花墳) (만주 봉천성 증안현)

산연화분은 현실과 현실이 전후로 배치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선도가 기름하게 되어 있어 구자형 배치를 이루었다.

석벽에는 회토를 바르고 그 위에 연꽃을 비롯한 가진 문양을 그려서 장식했다.

천정의 구근방법은 내만형(內灣形)의 궁륭방한으로 공벽(Pendentive)을 구성하고 그 위에 투팔천정을 축조하였다.

우현리대묘(遇賢里大墓) (평남 강서현 우현리)

강서의 서쪽 약 4km쯤 되는 평야 중에 대, 중, 소의 3묘가 정족형으로서 있는데 대묘는 남쪽에 있고 규모가 최대이며 중묘는 서북에 있고 대, 중묘 공히 내부에 벽화가 있다.

대묘는 경이 약 70척, 높이가 약 29척이고 남쪽으로 면하여 내부에 방형의 현실이 있고 그 전면에는 긴 선도가 있다. 현실의 크기는 광이 10척 3촌, 깊이가 10척 4촌 6분, 천정 높이가 11척 5촌 9분이고 현실의 벽은 회고 좋은 화강석의 큰 절석을 잘 다듬질하여 가로 줄눈으로 쌓았다.

천정의 구조법은 삼실분과 같은 수법으로 축조하였다.

현실남면 입구 좌우벽에는 봉황을, 동벽에는 청룡, 서벽에는 백호, 북벽에는 현무도를 각각 그렸다. 천정에는 제1내쌓기면에 인동문양(Honey suckle ornament), 제2내쌓기면에 천인비행과 산과 수목으로 장식하고 귀천정의 3각석에는 4반분의 연관과 균제한 인동문양, 중앙각석에는 각종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색채는 강한 적색, 청색, 황색의 3원색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다른 고분 현실의 벽은 모두가 자연석으로 쌓고 그 위에 석회를 발랐는데 반하여 우현리 대묘는 벽이나 천정을 절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그 표면을 잘 다듬어서 그냥 위에다가 벽화나 천정문양을 그렸으므로 박락하지 않고 색채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다.

고분 벽화 문양의 성질을 살펴보면 불교 전래 이전의 4신과 일월 성신, 불교 전래 이후의 연관(蓮嬋)과 천여(天女) 및 서역 전래의 인동(忍冬)과 당초(唐草) 등의 가지각색 문양을 교묘하게 혼용 장식하였는바 이

것은 중국의 동진(東晉)과 북위(北魏)의 영향을 많이 받은 때문이었다.

우현리 종묘(평남 강서군 강서면 우현리)

종묘는 경이 약 50척, 높이 약 26척의 토분으로서 내부의 현실은 광이 1척 2촌, 길이 10척 6촌 8분, 천정높이 8척 5촌 2분이고 동, 서, 북쪽의 3면의 벽은 한장의 큰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남쪽면에 입구가 있고 전면에 긴 선도가 있다. 입구의 좌우벽도 한장의 큰 석재를 세웠다.

천정의 구조는 4방 벽 위에 2층의 단형 내쌓기를 하고 중앙은 방형의 큰 돌 한장으로 덮었다.

대표와 같이 직접 석재면에 벽화를 그렸으며 4방 벽면에는 선도를 그렸다.

대표는 절석으로 구축한데 반하여 종묘는 4벽과 천정에 한장씩의 큰 석재를 사용한 것이 특색이다.

매산리 사신분(梅山里四神墳)(평남 용강군 우대면 매산리)

진남포 서쪽 약 10km 매산리 언덕 위에 있다. 토분으로서 내부에는 방형의 현실이 있고 현실벽과 천정에는 옷칠(漆)로서 4선도와 인물도 등을 그렸다.

로산리개마분(魯山里鎧馬墳)(평남 대동군 임원면 도산리)

평양 동북 약 16km 대성산록에 있다. 현실은 거의 방형이고 천정은 오층단층 위에 큰 돌로 덮였으며 4벽에는 4선도를 그렸으나 대부분 박락하여 분명치 못하다.

진지동쌍영분(眞池洞雙靈墳)(평남 용강군 해운면 진지동)

평양선 기양역에서 진남포 방향으로 좀 가면 진지동역이 있다. 역의 서남쪽 약 2km 지점에 쌍영분이 있다.

쌍영분은 전실과 현실로 되고 전실과 현실 사이에 2개의 8각 기둥이 있다.

기둥의 주두(柱頭)와 주각(柱脚)에는 연화문양을 조각하고 주신(柱身)에는 향룡을 틀어 올렸다.

이런 양식은 고구려 독특한 양식이다. 천정의 구성수법은 삼실분 및 우현리 3묘의 천정수법과 같다.

현실 후벽에는 건축에 관계가 깊은 그림이 그려 있다.

주 벽의 좌우에 기둥과 두공형(料拱形)을 그리고 두공은 양형(梁形)을 받고 있으며 양형상의 중앙과 양단에는 복화반형(覆華盤形)을 그렸다.

건축도의 모양은 삼실분과 안성동 대분벽화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지붕은 본기와잇기로서 앙곡이 작은 처마이다. 맞배집 또는 8작집으로서 음마루 양단에는 치미(鷓尾)물 얹

히고 중앙에는 화염보주(火陷寶珠)를 올려놓았다. 바닥은 흙 또는 돌바닥으로 되어 있고 가인(家人)은 정면 중앙의 석개를 통하여 집에 드나든다. 기둥은 원주(圓柱)인 듯하고 기둥 백리에는 하방을 질렀다. 기둥머리는 뿌리보다 작게 깎아내고 기둥머리의 두공은 큰 주두로 받쳤다.

주두는 높이가 비율이 크고 높이의 1/4가량이 주두 굵으로 되어 있다.

주두 위의 첨차(檐遮)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교두첨차가 피어 나와 소로가 위를 받는 방법을 반복하나 매개 2출목 이하이다. 첨차는 지나게인 대침자와 소침자로 되어 있다. 포벽은 등자주와 복화반으로 지지하도록 되어 있다. 복화반은 소로 밑에서 비슷히 2개의 발로 버티고 있다. 목부에는 모두 주칠(朱漆)을 하거나 당초문 또는 반구문(蟠虺文)을 그려서 장식하였다.

화상리감실분(花上里龕室墳)(평남 용강군 친영면 화상리)

감실분은 전실의 동서 양쪽 벽에 각각 장방형의 감실이 있고 그 속에는 분묘의 주인공인 듯한 인물을 봉안 하였다.

천왕지신분(天王地神墳=八角天井墳)(평남 순천군 북창면)

전실, 현실과 선도의 배치 형식은 다른 분묘와 동일한 수법이나 천정구조가 다른 분묘에 비하여 특이한 점이 있다.

방형 평면의 현실의 천정이 방형으로부터 8각형의 공벽(拱壁, Pendentive)으로 8각형에서 다시 방형으로 그리하여 투팔천정으로 끝나는 구성법은 실로 기상천외의 독특한 수법이다.

층층으로 변화하여 올라간 천정 구성법은 역학적 구성을 떠난 장식 차수(叉手)가 층층히 나열되고 소로에는 수면(獸面)을 그리고 전면에는 채화로써 장엄하게 장식한 환상적 가구법을 사용하였다.

(3) 기와 및 전돌

전 돌

전돌은 일종의 일건벽돌(日乾壁甍)인데 낙랑시대에 이미 분묘의 현실을 쌓기 위하여 전돌을 사용한 예가 있다.

그러나 고구려 분묘 중 대동강 부근의 분묘에서는 이를 사용한 것을 전연 볼 수 없었고 다만 만주 증안현 일대의 분묘 중 태왕능과 천추분으로부터 문자명이 있는 전돌을 발견하였으나 그 수가 적으며 두께도 얇다. 또 평양부근과 청암리 성지내에서 한천(寒川) 2자의 분

자명이 있는 전들이 발견되었지만 분묘에 전을 사용한 것은 아닌 듯하다.

기 와

기와는 국내성(고도)과 평양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부막새와(夫莫斯瓦=巴瓦), 여막새와(女莫斯瓦=唐草瓦), 여와(女瓦=平瓦) 등이 있다.

부막새와……문양은 연화문, 인동문, 수문문, 당초문, 복선문, 중위문 등 여러가지가 있다.

여막새와……안화공지로 부터 일종의 초화문을 양각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고구려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

여와……표면에 포목(布目)이 있고 배면에는 방격문, 사격문, 우상문, 당대문, 인동문, 공작문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상 여러가지 기와는 중국의 동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8. 백제의 건축

백제는 전 마한으로서 본래 부여의 백성이 갈라져 남방으로 유랑하다가 한강 유역에 단취하여 드디어 일국을 이룬 것이다. 시조는 온조대왕(溫祚大王)이요, 도읍은 위례성(慰禮城)이라 하여 처음에는 한산성(광주)에 정하였다. 제21대 개로왕(蓋鹵王) 21년(서기 475년) 고구려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국도를 웅진(泗泚=부여)으로 옮겨 국호를 남부여라고 개칭하였다. 이 때 문화가 번영하였으나 의자왕 31년(서기 660년)에 나당(羅唐)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백제는 건국 초부터 북은 대방에 접하고 항상 남지나와 교통하였으므로 신라 임나(任那)(가야)에 비하여 일찍부터 한(漢)대의 문화를 도입하여 제도문물의 발전을 보았다.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에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수입됨에 따라 육조제통의 불교 예술이 점점 발달하였고 부여(사비)에 천도 후 양에 사자를 보내어 열반경을 지래(持來)케 하고 건축공장, 화공을 초빙하는 등 남조 문물을 많이 수입하고 동왕 30년(서기 558년)에는 일본에 처음으로 불상과 교전을 전하여 일본에 불교예술을 발달케 하였다. 제29대 법왕, 제30대 무왕도 열심히 불교를 신봉하여 장엄한 왕흥사를 건립하였고 이어 칠악사(漆岳寺), 천왕사(天王寺), 도양사(道讓寺) 백석사(白石寺) 등을 조영하여 불교 융성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백제 시대의 예술은 한과 육조를 통하여 불교 건축을 도입하고 다시 이것을 일본에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백제의 예술은 직직하고 남성적인 고구려의 예술에 비하여 규

모는 적으나 우아하고 유순한 여성적인 예술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백제의 건축물이나 공예품은 수차의 병화에 의하여 소실 혹은 파괴당하여 현존한 것은 겨우 석탑과 수개의 고분과 고분에서 발굴한 소수의 유물 등이 있을 뿐이다.

(1) 도 성(都城)

도성지제(都城之制)는 고구려 도성 수법과 대체로 같다. 모두 산성을 뒤에 지고 대하를 앞에 둔다. 즉 광주(廣州)는 한산성(남한산)을 뒤에 지고 한강을 앞에 두었으며 공주는 공산성을 뒤에 지고 금강을 앞에 두었다. 부여는 북에 부소산성을 지고 앞에 백마강을 두었다.

(2) 불사석탑(佛寺石塔)

당대의 불사건축은 전기한 바와 같이 왕흥사(王興寺)를 비롯하여 각지에 많은 불사가 건축되었으나 수차의 병화로 말미암아 모두 소멸해버렸고 현존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의자왕 시대 백제의 건축공장 200인이 신라의 초빙에 응하여 유명한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술에 있어서는 신라보다 일일지장(一日之長)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며 또 백제 7당가람의 양식은 일본에 전하여져서 일본의 비조시대(飛鳥時代)의 가람제도(伽藍制度)를 이루게 하였다.

석탑으로서의 부여군 내에 있는 5층 석탑인 부여탑(大唐平百濟塔, 一名平濟塔)과 익산 용화산 밑에 있는 폐미륵사(廢彌勒寺) 9층탑 및 익산 왕궁평 5층석탑이 있을 뿐인데 부여탑은 백제가 멸망할 때 당장 소정방(蘇定方)이 초층탑신(初層塔身)에 그의 건승기념의 비명(碑銘)을 새기고 이름하여 「大唐平百濟國碑銘, 顯慶5年 8月 15日建」이라 하였다. 탑이라는 것은 원명(原名)으로는 범어(梵語)로 stupa, 파리어로 Thupa인바 사음으로서 탑파(塔婆) 또는 소토파(卒都婆) 등의 문자로 쓰며 또 부도(浮屠)라 함은 Buddha의 사음기법(寫音記法)인 것이다. 탑파는 처음에는 불사리(佛의 유골 또는 유발)나 법사리(경사리 경문) 등을 넣어 존숭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었지만 후에는 기념적으로 또는 가람의 표시 목적 등으로도 많이 건립하였다.

부도는 고승(高僧)의 덕행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부여탑이나 미륵사 지탑은 조선탑파의 최선구를 차지한 것이다. 그 양식은 일찌기 중국이나 인도에서 볼 수 없는 백제 독특한 목조건축을 번안한 양

식으로서 신라나 일본으로 까지 전파되었다.

(3) 능 묘(陵墓)

백제 초기의 분묘로서 광주군 중대면 석촌에 대소수 십기, 공주 지방에 수기가 산재하고 있다. 백제왕릉이라고 칭하는 왕릉리 고분은 부여 동방 10리 가량의 현 내면 왕릉리 언덕 위에 6기가 있다. 동서로 3열, 남북 각 2기씩 그 위치에 따라 동상분, 동하분, 중상분, 서상분, 서하분이라 부른다. 6기중 동하분 의내부에는 장방형의 현실이 있고 이 현실의 벽과 천정은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도 돌로 깔았다. 백제에는 훌륭한 벽화가 그려졌다. 대개 부여지방의릉묘는 백제 말기에 속한 것으로릉묘의 외부적 양식이 나랑, 고구려의 것과는 다르며 또 현실이 장방형인 것은 신라와 입나의 고분과 같으나 그 구조는 다르다. 백제릉묘의 형식은 평정석식(예, 광하분), 내쌍기식(예, 중상분), Vault천정식(예, 중하분)의 세가지 천정구축법과 단석식(예, 동하분, 중상분), 절석식(예, 중하분), 난석식(예, 진산리고분)의 세가지 축석법으로 되어 있다. 평면은 나랑, 고구려는 정방형인데 반하여 백제의 것은 전부가 장방형이며 단변의 벽은 천정까지 올라간 것이 특색이다. 동하분은 현실벽의 석재를 수마하고 그 위에 회구로써 벽화를 그렸다. 사신도를 그렸던 형적이 있으나 백호의 머리 외에는 분명치 않다. 천정은 평평한 전면에 연화(蓮花)와 운문(雲文)이 교묘하게 그려졌다. 중상분에서 발견된 보관금구(寶冠金具)에는 인동문양(忍冬文樣)이 조각되었고 식정(飾釘)에는 연화문양이 있다.

(4) 전 와(磚瓦)

1. 전

백제 시대의 전의 양식은 양(梁)시대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문양은 한대의 수법(斜交線)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남북조시대 양식의 연화문, 인동문을 가지고 있다.

주한(漢)에서 6조예의 과도기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수법에 있어서 나랑의 것보다 견치하고 섬교하다.

2. 기 와(瓦)

부여읍 내의 및 부소산성으로 부터 부막새와(巴瓦), 여와(平瓦)의 파편 및 치미의 잔결이 출토 발견되었는데 그 연화문의 양식이 남경출토의 양식과 같다.

부막새와는 주변이 약간 넓고 또 높고 중앙에 연화문을 넣었다. 연화문은 변이 세장하고 증방이 적고 7과의 연자(蓮子)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연판은 중앙

이 약간 높고 선단에서 반전한다. 백제에는 부막새는 있어도 여막새(唐草瓦)는 없고 여와(平瓦)뿐인 것 같다. 궁전이나 불사 등의 용마루 양단에는 치미를 얹히었다.

9. 가야의 건축

가야(伽倻)는 삼한시대(마한, 진한, 변한)의 변한의 고지를 점하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여 지금의 경상남도 서남부 즉 낙동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었다. 일종의 연방조직으로서 그중 중요한 국가가 6국이었고 이때문에 6가야라고 하고 또 이것에 소국을 넣으면 10국이 되어 10가야라고도 하였다. 중요한 것을 들면 대가야(고령일대), 함안가야(함안일대), 가락(김해일대), 성산가야(성주일대), 소가야(고성일대) 등인데 이 중에서 대가야가 가장 강대하였다. 가야연방은 A.D. 562년 진흥왕 때 신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유물로서는 도성지와 분묘가 있을 뿐 건축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가야의 유적으로서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대가야왕궁지.....고령
- 주산산성.....고령
- 함안가야왕궁지.....함안
- 분산성.....김해
- 목마산성.....창령
- 김수로왕릉.....김해
- 동왕비등.....김해

기타 고령, 함안, 진주, 수정봉 및 옥봉, 창령 등지에 가야시대의 분묘가 산재하고 있다.

10. 고 신라의 건축

고 신라 시대라함은 B.C. 57년 신라건국으로부터 삼국정립시대 까지를 말하고 제30대 문무왕(서기 661년) 이후의 국토통일시대를 신라통일시대라고 구분한다. 신라는 B.C.57년 박혁거세왕이 금성(경주)에 도읍을 정하고 6부를 통일하여 왕이 되고 국호를 서라벌이라 칭한 이후 제56대 경순왕(A.D. 935년) 때 고려 태조에게 멸망 당할 때까지 992년 간이란 장구한 세월을 통치하였다. 진흥왕(서기 540~576년) 시대에는 영토가 북으로는 경기도에서 함경남도까지에 이르렀고 얼마 안가서 입나(伽倻)를 멸하였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문무왕 때 당국(唐軍)의 원조를 얻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반도를 통일한 것이다(서기 661년). 고신라는 눌지왕(서기 417~457년) 때 고구려로부터 사문(沙門), 묵호자(墨胡子)에 의하여 불교가 전래된 이후 법흥왕(서기 513 ~539년), 진흥왕 때 불교가 급격히 흥

왕하여 제도문물이 정비되고 당탑(堂塔)의 조영이 그칠새 없었다. 진흥왕 때는 흥륜사(興輪寺), 황룡사(皇龍寺), 기원사(祇園寺) 등의 대가람의 조영이 있었고 진평왕 때는 삼랑사(三郎寺)를 건립하였고 선덕여왕 때는 분황사, 황룡사 9층탑을 건조하는 등 건축예술의 대발전을 이루었다. 신라예술을 계통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B. C. 57(전국)~A. D. 499년 사이는 신라 고유예술시대이며 지증왕원년(智証王元年)(A. D. 500)부터 선덕여왕 말년(A. D. 646) 사이는 6조 예술에 신라 고유예술을 가미한 시대이다.

또 신라통일시대는(A. D. 645~A. D. 928)지나의 당 예술에 전대의 예술을 가미한 시대이다. 고신라시대의 유물로서는 목조건축은 완전히 인멸(湮滅)해 귀하였으나 석조건축에는 분황사탑과 첨성대가 있고 조각에는 석불과 동불의 우수한 것이 유존하고 당시의 왕실이었던 월성(月城)이나 불사의 유지로부터 와당편(瓦當片)이 출토하였지만 다른 공예물의 유물은 희소하다.

(1) 도 성(都城)

신라의 도읍은 지금의 경주에 있었다. 남에는 남산, 서에는 송화산(松花山), 선도산(仙桃山), 동에는 금강산(金剛山), 그 남쪽의 명활산(明活山) 등에 축조한 산성을 등에 지고 남의 남천(南川), 서의 서천(西川), 북의 성천(星川) 등 강물을 바라보는 곳에 도성을 축조하였다.

금 성(金城)

문헌에 의하면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금성을 쌓았다 한다. 지금 경주시의 동쪽에 해당된 바 유적은 전연 불명하다.

월 성(月城)

사파왕이 조영했다고 한다. 경주시의 동남 약 2km 인 곳에 남천의 북안(北岸)에 따라 자연의 구릉을 이용하여 주위에 높이 2,30척의 토성을 쌓았는데 오늘날 아직 남아 있다. 하천에 따라 형상이 반월형을 이루므로 월성 또는 재성(在城)이라 하였다.

산 성(山城)

도읍의 주위의 산에는 산성을 축조하였다. 즉 남산성, 명활산성, 선도산성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2) 첨 성 대(瞻星臺)

첨성대는 선덕여왕(서기 632년~646년) 시대에 건조한 것으로서 분황사지탑(芬皇寺址塔)과 아울러 한국건축의 현존한 최고의 하나이다. 화강석으로 축조한 동양 최고(古)의 천문관측대로서 평면은 하경이 17척 1촌, 높이가 29척 1촌이 되는 웅대한 석조건축이다. 석재를 수평으로 축적하고 단형(段形)으로 좁혀가면서 쌓고 상단에 석재로써 정형(井形)을 짜았다. 이 위에 관측기를 놓았던 것이다.

(3) 불 사(佛寺)

고신라시대의 불사건축은 문헌에 의하면 자지에 장엄한 사찰가람이 수없이 건조되어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하나 몽고병의 침입으로 병화에 의하여 대부분 소멸되고 겨우 남은 것도 이조에 들어와서 배불훼석(排佛毀釋)의 정책에 희생당하여 분황사탑 하나만 남아있을뿐 현존한 목조건축이 하나도 없음을 대단히 애석한 일이다.

(4) 고 분(古墳)

신라의 고분은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과 그 양식이 판이하였다. 즉 전자는 규모 정연한 질석 또는 전으로 축조하고 내부에 벽화가 그려졌었는데 반하여 신라분은 관곽을 놓고 그 주위에 야석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었던 적석분(積石墳)과 석곽을 묻고 그 위에 잠석을 쌓아 올리는 석곽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를 그리기에 부적당하여 벽화는 없고 그 대신 부장품의 보관에는 적당하여 각지고분(各地古墳)에서 금관, 금이, 금대, 금은제 귀거리, 비녀, 가락지 등 부장품이 많이 출토되었다. 고분으로 유명한 것은 전기, 금관이 출토된 경주금관분, 귀거리가 출토된 보문리 고분 등이다. 이들 공예품에서 당시 예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다음 호로 끝남)

숨은 간첩 자수하면
처벌 않고 도와 준다.